

漢字 日報 제9794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2월 2일 목요일(음력 1월 12일)

한라 포커스 <상> 장애아 가정 부담 못 더는 '발달재활서비스'

재활 지원 늘어도 치료비 부담 가중

정부 올해 바우처 지원금액 25만원으로 조정
회당 단가 인상에 부모들 "안 오르니만 못해"

"한 가정이 얼마를 감당해야 합니까. 아이 치료비가 매달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민원 10여 건이 연이어 접수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크게 올라 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였다. 정부는 올해 13년 만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을 올리며 재활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장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대상 아동은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지원액을 기준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금이 인상된 것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지원금 인상 시기에 맞춘 듯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오른 데 있다. 제주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은 모두 44곳(제주시 33곳, 서귀포 11곳)인데, 올해 대부분이 언어, 미술, 놀이, 인지 등 재활서비스의 1회당 단가를 최대 6만25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월 바우처 지원금 25만원이면 재활서비스 4회를 이용할 수 있는 단가로 맞춘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단가 기준을 주 2회, 월 8회(1회당 3만

1250원)로 삼고 있지만 현실은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올해처럼 정부 지원금이 늘어도 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가 적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월 4회 기준 1회당 서비스 단가가 지난해 5만7500원(지원금 23만원)에서 올해 6만2500원(지원금 25만원)으로 오른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에 장애아 부모들은 "안 오르니만 못 하다"는 쓴소리까지 낸다.

같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장애아 가정의 체감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제주시 지역만 들여다봐도 문제는 확연하다. 제주시로부터 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변동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제주시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가 한 달 7~8회 기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는 곳은 탐라장애인복지관 1곳이 유일하다. 한마디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만 바우처 지원액 25만원으로 월 8회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21년부터 월 6회의 재활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도 크게 줄어 올해 4곳에 그친다. 나머지 대부분이 월 4~5회(1회당 단가 5만원~6만2500원)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처럼 월 8회의 재활치료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언어치료 하나만 주 2회씩, 매달 8번 받는다고 해도 1회당 서비스 단가가 6만2500원일 때 정부 지원금 외에 25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바우처를 지원 받아도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2만원~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부담금은 최대 33만원에 달한다.

발달장애 아동을 둔 A(45)씨는 "언어재활 하나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어는 물론 인지, 감각통합, 심리체육 등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활을 함께 받기 때문에 월 치료비로 300~500만원까지 쓰는 경우도 봤다"며 "장애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 가격 제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갓 잡아 올린 상상한 은갈치 1일 제주시수협 어시장에서 어민들이 지난 밤사이 낚시로 잡아 올린 상상한 갈치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를 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오 지사, 어제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민간 우주기업 유치 중심 투자·인재 육성 견인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으로 '우주산업'을 꿈았다. 제주도는 민간 우주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 인재 육성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2면](#)

제주도를 민간 우주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는 오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우주산업을 향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우주산업 육성에 있어 제주도의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는 우주산업에서 확고한 우위를 접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라며 "적도에 가까워 가장 경제적이고,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다수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합 관제하고,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위성 운영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의 5대 추진전략은 ▷제주 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민간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다.

우주 거버넌스는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대학, 민간협의체가 참여하게 된다.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앞으로 추진될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관掌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제주 우주산업 추진 계획의 방점은 민간 기업 유치에 찍힌다. 도는 앵커기업(기업의 연쇄 입주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을 우선 유치한 뒤 우주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연관 기업 육성 지원 전략을 세우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할 분야는 위성 데이터(위성정보)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올부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쓰레기 실태와 산림 훼손을 감시할 위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빅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간 부문에서 소형 위성 로켓을 발사하고 친환경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도는 민간이 주도해 소형위성발사 시설을 구축하고, 제주에서 민간이 소형·큐브위성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지사는 실제 여러 기업들과 우주산업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에서 만든 소형 큐브 위성을 제주에서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위성을 관제하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225
잠정집계 1일
<17시 기준> 누적 38만0550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응은?... 4면 / 한파도 녹인 '이웃사랑' ... 5면

DAECHANG MOTORS
[www.dacmotors.co.kr](#)

돈 버는 전기 소형화물차! 새로운 전기차 시대 도래!

DANIGO EV

판매 개시 현재 시판 중(7일 내 출고 가능)

1회 충전 주행거리 환경부 공인 1회 충전 주행거리 다니고-C : 214km

보조금 1,800만원(예상) 지자체 보조금 확인 필요

충전시간 50분 (급속 100KW 기준)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 57.9kWh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무상 보증기간 3년 60,000km (EV 전용 부품)

100 대 한정 특별이벤트 진행

부가세 환급(개인·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지원금 / 폐차지원금 / 냉동기지원금

100 대 한정 특별이벤트 진행

선착순 100 대 한정 특별이벤트 진행

상담문의 EJMOTORS ELECTRIC JEJU MOTORS (대창모터스 제주총판)

064-743-7999 064-743-1999